

리명수의 지하수폭포

압록강지류인 리명수하천의 기슭에 있다.

폭포는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이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리명수골짜기의 오른쪽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 걸려있다.

기본물줄기는 9 개이며 이 물줄기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.

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지하수폭포로서 물량은 초당 0.8 m³이며 물온도는 4°C정도이다.

지하수가 절벽사이에서 뿜어나오는 리명수폭포는 흔히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으로서 국제적의의가 큰 희귀한 지질학적유산이다.